제 325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8년 4월 5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사순절의 묵상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① 승리의 입성(일요일, 막11:1 - 11)
② 성전을 두번째 정결케 하심(월요일, 막11:15 - 26)
③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화요일, 막11:27 - 12:40)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24:25)
⑤ 예수의 발에 두번째 기름을 부음(화요일 저녁, 눅 7:3 - 50, 첫번째는 막14:3 - 9 참조)
⑥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화요일 밤, 막14:10 - 11)
⑦ 베다니에서 휴식(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잡수심(목요일 오후, 막14:12, 31)
⑨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심(목요일 밤, 막14:32 - 52)
⑩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 - 13)
⑪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14:53 - 72)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금요일 오전, 눅22:66 - 71)
⑬ 빌라도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 23:25)
⑭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6 - 12)
⑮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금요일, 눅23:13 - 25)
⑯ 십자가에 달리심(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막 15:16 - 41)
⑰ 묻히심(금요일 오후 6시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15:42 - 47)
⑱ 무덤에 머무심(토요일)
⑲ 부활하심(일요일 새벽, 막16:1 - 8)

신약개론 (이종윤목사 지음) 중에서

고난주간 주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특별새벽기도회 · 금식 등으로 고난에 동참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식, 특별금요기도회 등 고난주간 행사를 갖게 된다.

▶교회학교 행사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장애인주일이기도 한 오늘 사랑부와 유년부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세족식을 하는 등 고난주간 행사를 갖는다.

▶특별새벽기도회

6일(월)부터 11일(토)까지의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의 고난의 행적을 상고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1층예배실에서 갖는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금 처한 갖가지 위기와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10일(금)은 금식일

고난주간 동안 내내 참회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주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10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제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고난주간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을 매년 장애인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한 전례를 따라 사용하기로 했다. 금식헌금은 다음 주일(12일) I · II · III부 예배 헌금 시간에 바치면 된다.

▶성금요일특별기도회

평소 심야기도회로 모이던 금요일 저녁 9시에는 1층 예배실에서 교구 전체가 연합하여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이번 주 금요일 교구별모임과 다락방 모임은 이날 저녁 9시에 열리는 특별연합기도회로 대치된다.

부활절 예배와 행사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다. 부활절 새벽예배는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리며 서울시 연합예배는 장충체육관에서 드린다.

다음 주일 I · II · III부 예배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준비한 부활절 행사가 진행된다.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찬양대(대장 김상철 장로, 지휘 배영준 집사, 오르간 한현숙 집사, 피아노 백송희 선생)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순례자 칼럼

자기정당성 주장을 포기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오직 한 편 사람만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했다. 이 강도야말로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를 둘러선 모든 사람 중에 결정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포기한 오직 한 사람이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선포한 최초의 복음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 위에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를 메시야로 고백했다. 주님은 지체함 없이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심으로 성도가 되었다.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정당성을 포기한 십자가를 통해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사야

이스라엘이 산출한 들포도

5장 8 - 2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신 포도는 공평과 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맺은 포도는 포학과 원망 소리뿐인 들포도였습니다(사 5:1 - 7). 본문에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8, 11, 18, 20, 21, 22절). 그리고 13, 14 - 24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어가 나오며 이스라엘이 죄값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탐심(8 - 10절), 방탕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11 - 17절), 그리고 불신자(18 - 19절), 진리를 곡해하는 자(20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21절), 공의를 굽히는 자(22 - 23절)등 6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맺혀놓은 들포도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경고를 포함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1. 탐하는 자가 받을 화

자신의 능력껏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은 화를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일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무서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충분히 가진 사람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희년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질려와 형극이 나서 곡식을 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을 부리고 자기 치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되는 것같은데 결국 망하고 맙니다.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 1:19)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은 목숨까지도 잃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 11:28).

돈은 일 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아무 것도 쌓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삼으로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사 5:8 - 23)

이종윤 목사

2. 방탕한 자가 받을 화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받을 대상이 됩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흥이나 돋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하여 음악을 듣는다면 그 사람 역시 화를 받을 대상이 됩니다.

술에 취하거나 쾌락만을 좇는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이 죽은 자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딤전 5:6).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지한 자가 되는 화가 임하게 됩니다. 지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잠 1:7).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앞을 못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빛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참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것같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쾌락을 좇는 사람들은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낭비하고 남용하던 것이 나중에는 모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좇는 사람들의 결국은 이와 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5절). 무덤 속에 들어가면 모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즐거워하던 것들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잠잠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탐심과 쾌락의 산물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자가 심판을 받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강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대받는 자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모두 처리하시는 마지막 심판날에 교회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참석하면서

"7년째입니다"

이만호 목사
(인천 충현교회 담임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 부회장)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돌립니다. 서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종윤 목사를 이 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월요일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백합꽃과 같습니다.

"변화가 많았습니다"

서먹하던 각 교단별 목사들의 화음이 점차 조화롭게 되어가고 있으며 여목회자들과도 가까와져 좋은 동문으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도 토론하곤 합니다. 목회가 변했습니다. 더욱 사명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변화되었습니다. 산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변해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회개가 강해하는 시간 속에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느껴봅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장로교회를 예비하시고 이 일을 감당케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곳에 있음을 확신케 됩니다. 다만 변화되지 못한 목회자들의 설교준비 제공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이 일곤 합니다.

"동정을 살펴봅니다"

서울교회에서 이같이 어려운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는 모습을 월요일마다 바라봅니다. 수료한 동문들의 협조심이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열심으로 협조하여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의 불길이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 있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시시때때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딤후4:2) 말씀이 강의 시간 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곳으로 예수 안에서 교제가 더욱 넘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을 대접하려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에 권사님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짜증 한 번 없이 섬기시는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태어났는가?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 목회자단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바라보며

민영수 목사 (5 · 6교구, 중등부 지도)

목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장애인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진정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6년 전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다.

우리 부부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은 첫 아이를 낳은 지 2년 후였다. 유달리 배가 불러보였으나 자연분만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고 출산의 경험이 있던 터라 별 염려없이 예정일에 입원을 했다.

저녁 무렵 시작된 진통은 밤새 계속 되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왕절개수술에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요청해 왔다. 수술 순서를 기다리는 중 자연분만이 되었으나 아이는 5.29kg으로 매우 커서 분만과정에서 무리가 되었던지 호흡이 정상이 아니었고 X - Ray촬영을 해보니 양쪽 폐가 하얗게 되어 있었다.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두고 교회 일을 보느라 다음 날에야 병원에 가보니 아이의 오른팔에 이상이 있었다. 힘이 전혀 없었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참담한 심정과 당혹스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교회로 달려가 울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다.

둘째 아들 충만이는 그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부분은 회복하였으나 오른팔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아직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충만이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고 팔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팔이 불편한 아들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비록 몸에는 장애가 있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도 순수한 그의 모습에서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기도 한다. 또 왼쪽팔로 오른쪽 팔의 기능까지도 대신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자문해보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육체의 연약한 자들을 그들과 같은 아픔과 고통의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스승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등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두는 더욱 낮은 마음과 자세로 그들을 섬기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종종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꾸밈없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도리어 온몸은 성하나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낮아질 줄 모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땐 오히려 인격적 · 영적 장애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1998년 장애인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영육 간에 장애를 가진 자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섬김과 치유의 아름다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해본다.

오늘은 장애인주일

오늘은 총회가 정한 장애인주일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 인구의 약 3%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교통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장애자가 80%를 넘는다고 한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소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고 어떻게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는 날이다.

사♥랑♥의♥하♥모♥니

- 사랑부와 대학부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날 -

사랑부에 대학부 지도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형과 누나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신발장이 모자라서 문앞까지 가지런히 놓인 신들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와!" 환성이 나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형들과 누나들이 한 사람씩 사랑부 아이들 사이에 앉아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도 했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율동의 열기가 더해가면서 너무도 감격스러워, 사랑부 모든 교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할 줄을! 사랑, 그 중에도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갈등을 초월함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몸에 침을 흘리며 엇갈리는 손뼉을 치는 사랑부 아이들의 상기되고 환한 모습은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펄쩍펄쩍 뛰며 기쁨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대학생 형님 누나들의 해맑은 모습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랑부 아이들은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들은 교회에서 그들을 데리러 와주는 주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일날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고 되물어보곤 합니다.

아이들 수송문제는 큰 과제입니다. 몇몇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소변보는 일을 도와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 가며 태워 오고 가는 일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축 늘어진 아이들은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땀을 흘리며 말없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늘 숙연해집니다. 믿음과 뜻이 있으신 형님이나 누나들께서 힘을 합쳐 주신다면 우리 사랑부는 더욱 활기차고 성령충만한 사랑부가 될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질 것을 믿습니다.

김숙자 권사(사랑부 부감)

대학부 전 회원은 올들어 교회 여러 부서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매달 한 부서씩 찾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2월에는 소망부를 찾아 교회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한 교회안에서 서로 알고 서로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소망부에 이어서 우리는 대학부 집회시간에 사랑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찬양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뼉치며 서로 지탱하여 일어서서 찬양한 이 시간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형을 활용한 전도사님의 설교는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온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대학부 몇몇 회원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극을 통해 사랑부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그들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런 나를 사랑하고 이런 나를 도와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부는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랑부를 위해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사랑부 차량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대학부가 벌이고 있는 여러 부서 방문 활동이 우리 교회내 여러 부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교회학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이승현(대학부)

◆ 각 부서 이모저모 ◆

◇ 유년부= 11일(토) 어린이초청잔치를 연다. 유년부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맞추어 행하고 있는데 이번 잔치는 이 전도활동의 일환으로 그간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온 어린이 새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잔치에는 새로 온 어린이 뿐 아니라 유년부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요청된다. -이선주-

동정

◆이종윤 목사는 6일(월)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에서 특강하며, 10일(금)에는 서울여대이사회에 참여한다.

◆박선영 (초등부,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박정선 집사 딸)은 8일(수) 오후 7시 30분 호암아트홀에서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협연을 한다.

◆김정운 집사(3교구)는 석계두산아파트로 이사했다(☎ 967-6953)

◆장재영 · 김공숙 집사(9교구) 가정은 26일(목) 득남했다.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심상필 성도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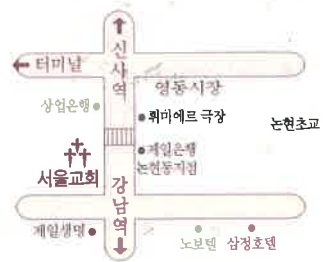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회개와 경건의 삶으로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2. 장애인들과 사랑부를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강좌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